

두산
인문극장
2024



6.25-7.13

권리

크리스천스
The Christians

by Lucas Hnath

RIGHTS
권리

두산 인문극장 2024

권리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전제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에게 결부되거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 같지만, 권리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권리는 어디서 왔는가?

권리는 인간과 다른 존재들이 원래 소유했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양도받은 것일까? 만일 권리가 거래되거나 누군가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동물이나 로봇, 또는 바위 같은 비인간 존재들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 존재들이 권리를 갖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렀다. 고대 그리스에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남자 시민이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의 권리가 회복되었다.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간은 흐른다. 권리를 가진 인간이 늘어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었지만 권리를 가진 인간의 욕망은 지구의 시간을 빠르게 흐르도록 만들기도 했다.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로 매년 주제를 정하여 그와 관련한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2013년 ‘빅 히스토리’를 시작으로 ‘불신시대’, ‘예외’, ‘모험’, ‘갈등’, ‘이타주의자’, ‘아파트’, ‘푸드’, ‘공정’, ‘나이, 세대, 시대’에 이어 2024년에는 ‘권리’를 주제로 진행한다.

그 이전의 궤를 벗어난 기후, 그 변화를 다그친 것은 역설적으로 권리를 회복한 인간들의 집단적인 욕망이었다. 인간의 권리만을 주장하다가 인간이 멸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인간이 아닌 것에겐 아무런 권리도 없는가를 질문하도록 만들었다. 동물의 권리, 식물의 권리, 나아가 인간이 만든 인공물과 사물의 권리까지 고민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권리는 투쟁의 산물이다. 권리의 확장은 나눔의 과정이고 갈등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결론은 화해와 평화여야 한다.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들로 이 권리를 확장하는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싸움이 권리의 확장으로 결론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권리를 가진 인간이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류세의 인간이 비인간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과 권리를 나눌 때 지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연

연강홀

인권의 미래

송지우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4.8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

정익중 / 아동권리보장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15

장애학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권

김도현 /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4.22

노동은 어떻게 권리가 되었는가?

이준희 /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4.29

인권, 다양성과 배려를 넘어서

정희진 / 여성학자,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

6.3

동물의 권리와 동물법

박주연 / 변호사,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

6.10

노예, 권리를 빼앗긴 자들의 투쟁

권윤경 /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교수

6.17

로봇의 권리, 인간의 자리

전치형 /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6.24

전시

두산갤러리

우리는 개처럼 밤의 깊은 어둠을 파헤칠 수 없다

참여작가. 고사리, 권동현×권세정, 박화영, 엘리 허경란

5.15-6.22

공연

Space111

더 라스트 리턴

작. 소냐 켈리 Sonya Kelly / 번역. 신혜빈 / 연출. 윤혜숙

출연. 강혜련 우범진 이승아 이유주 정대진 정승길 조두리 최서희 최은영 최희진

4.30-5.18

인정투쟁; 예술가 편

작·연출. 이연주 / 드라마터그. 김솔기

출연. 강보람 김원영 김지수 백우람 어선미 하지성

5.28-6.15

크리스천스

작. 루카스 네이스 Lucas Hnath / 번역·드라마터그. 정지수 / 연출. 민새롬

출연. 박지일 김종철 안민영 박인준 김상보

6.25-7.13

크리스천스

The Christians

시놉시스

20여 년 전, 폴 목사는 작은 상가를 임대해서 자신의 교회를 개척했다. 그 작은 교회는 불과 몇 년 만에 수천 명의 성도를 거느린 대형 교회로 성장했고 그 많은 성도를 수용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 거대한 성전도 건축했다. 그때 진 빛을 10년 만에 다 갚은 직후 어느 날 폴 목사는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설교를 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는 교회 구성원들을 혼란과 갈등 속에 빠트린다.



작가 소개

“교회는 보기 어려운 것을 보기 위해 가는 곳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순간적으로나마 볼 수 있게 해주는 공간. 극장도 그런 곳이 될 수 있다.”¹

루카스 네이스(Lucas Hnath)

루카스 네이스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가장 선두적인 신진 극작가들을 위한 센터인 뉴 드라마티스트(New Dramatists)의 상주 작가로 활동했다. 2012년 <상속세(Death Tax)>로 데뷔했으며, 매년 한 편 이상의 장편 희곡을 발표할 정도로 다작을 하는 작가다. 평단으로부터 ‘동 세대 미국 극작가들 중 가장 강렬한 작가’라고 평을 받은 바 있다. 2017년에 발표한 <인형의 집: 파트2>로 브로드웨이에 데뷔했다.²

목사에서 극작가로

어렸을 때 목사가 될 거라는 기대를 받을 만큼 독실한 집안에서 자랐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의예과로 진로를 바꾸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몸매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것도 싫었다. 그래서 극작으로 다시 진로를 수정했다.³

<크리스천스>의 탄생

몇 달 동안 ‘카니에 웨스트, 조지 W. 부시의 흥망성쇠를 공연하다’라는 연극을 구상하던 때가 있었다. 그 작품은 결국 쓰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거대한 공론장 같은 연극, 제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도발적인 작품을 쓰고 싶다는 관심이 생겼다. 관객들이 처음에는 작품에 의심을 품었다가 공연을 보면서 그 선입견이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기독교 신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크리스천스>가 탄생했다.⁴

1. Playwright Horizons 인터뷰 중 발췌
2. 민새롬, '[연출 노트]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믿음에 대하여 : <크리스천스>', 『공연과 이론 2018·겨울호·통권 72호』
3. Playwright Horizons 인터뷰 중 발췌
4. AMERICAN THEATRE 인터뷰 중 발췌

작 루카스 네이스 Lucas Hnath

연극 <The Christians><Red Speedo><A Doll's House, Part2> 외

수상 2018 원뎀-캠벨 문학상 '드라마 부문'
2017 스타인버그 희곡 어워드
2016 오비 어워드 극작가상 <The Christians>
2016 아우터 크리티क्स 서클 어워드 아웃스탠딩 뉴 오프-브로드웨이 연극상 <The Christians>
2015 케실링 상 <The Christians>
2015 화이팅 어워드
2015 구겐하임 펠로우십

해외 리뷰

“비평가의 선택. 지난 5년 사이 등장한 가장 신선한 극작가 중 한 명인 루카스 네이스가 쓰고 레이 워테어가 독창적으로 연출한 이 훌륭한 연극은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다.”

Critics' Pick. Ingeniously staged by Les Waters, this terrific play by Lucas Hnath — one of the freshest playwriting voices to emerge in the past five years — is MESMERIZING.

- 뉴욕타임즈(Charles Isherwood, The New York Times)

“깊은 감동. 통렬한 감정. 신학적 논쟁에 관한 긴장감 넘치는 연극. 믿고 볼 수 있는 작품.”

DEEPLY AFFECTING. EMOTIONALLY DEVASTATING. A white-knuckled drama about a theological battle. This is a production we can believe in.

- 뉴욕포스트(Elisabeth Vincentelli, The New York Post)

“믿음에 대한 성숙하고 규정하기 힘든 연극.”

A mature and elusive play about faith.

- 가디언(The Guardian)

인물 소개



폴

담임 목사. 20여 년 전 작은 교회를 개척해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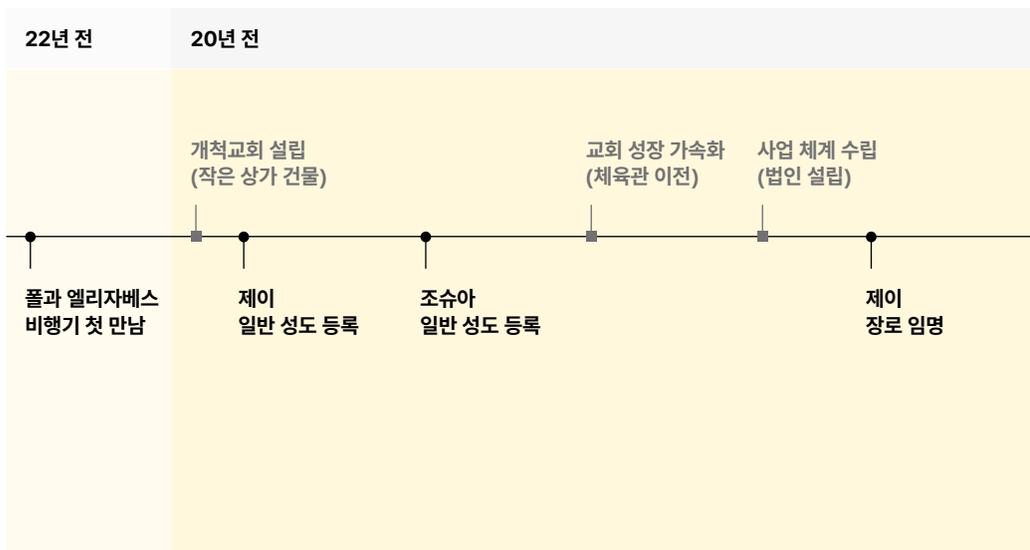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자유의 날입니다.”

엘리자베스

폴의 아내. 교회 공동체의 지속과 성장을 폴과 함께했다. 현재 여성도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고 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완벽한 너그러움’을 위해서는 결국 너그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그로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인물·사건 타임라인





조슈아

부목사. 교회 청년회를 재조직하여 활성화했다.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는 봤어요, 느꼈습니다. 어떤 것도 그 경험을 없는 것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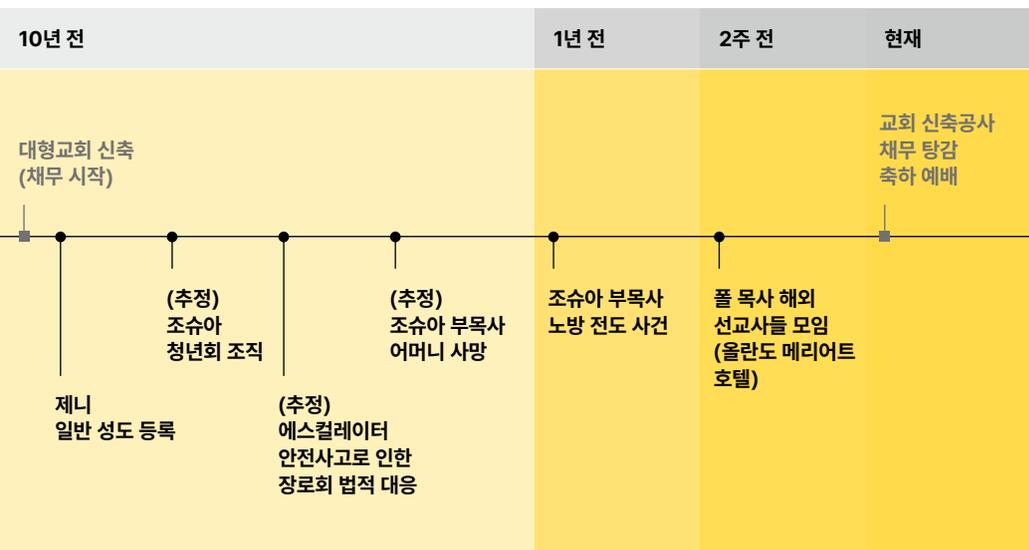
장로. 교회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장로회의 선임 장로이며, 풀 목사와 막역한 사이이다.

“우리 교회는, 알다시피, 거대한 법인체잖아.”

제니

평신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 도니와 함께 산다. 신앙심이 깊으며 교회에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제가 너무 슬프고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일 때,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신앙 공동체에서 믿음을 둘러싼 갈등의 문제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믿음

신앙 공동체에서 믿음은 핵심 요소이다. 믿음은 거룩한 대상이나 존재의 성격과 기원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행위의 기초로 작용한다. 또한 믿음은 어떻게 그 거룩한 존재나 세계가 실제의 인간 존재나 인간 세계와 의미 있게 관계되는가를 말해준다. 그래서 종교적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을 규정하며 특정한 행동을 계획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행동이 선하고 바람직하며 어떤 것은 악하고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내용과 범위는 종교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이 ‘교리’이다. 기독교 교리는 오랜 시간 발전하면서 신의 성품, 인간의 기원,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체계화해 왔다. 정통 교단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이단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통 교단 안에서도 성경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고 이에 따라서 믿음의 내용도 다양하게 갈라질 수 있다.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문학적 표현이나 상징적 표현으로 보면서 그 단어 자체를 믿기보다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연극 <크리스천스>는 이러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문제를 다룬다.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표현과 같이 구원은 기독교 믿음에서 핵심을 이룬다. 이와 관련하여 죽음 이후의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와 그 성격은 매우 중요하다. 연극에서 폴 목사는 전통적인 성경 해석과는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이것이 교회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결국 교회는 갈등과 분열을 맞게 된다.

신앙공동체에서 갈등의 이해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하는가’이다. 갈등이 없는 집단은 없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갈등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갈등은 해소되고 공동체는 안정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소수의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회에서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가 자신의 의지대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다른 교인들의 의지와 충돌할 때 교회는 더 큰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 연극에서는 담임 목사가 자신의 설교에 동의하지 않는 부목사에게 교회를 떠날 것을 권고한다.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믿음을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환부에서 병균이나 고름 같은 염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해서 때로는 문제의 근원을 도려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병균과 같이 공동체를 해치는 것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갈등의 관리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다. 사람들의 사고와 관습,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어디서나 발생한다. 연극의 제목이 ‘크리스천스(The Christians)’라고 복수로 표현된 것도 다양한 기독교인들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 우리 공동체는 아무 갈등도, 문제도 없다는 식의 생각이 오히려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기 쉽다. 그리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들어보고 발생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갈등의 원인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믿음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인류 역사에서는 종교 믿음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인간 존재의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염려하기도 한다. 연극에서도 이 부분이 암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장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실천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핵심 교리와 관련되어 있어서 신앙의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이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그 위험성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발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계에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교회 출석하지 않는 신자들이 30% 가까이 되고 그 수가 2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따라서 아무리 민감한 신앙의 근본에 대한 내용이라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는 곧잘 집단주의와 혼동되기도 한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게 되면 공동체주의는 집단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집단의 이익이나 획일화된 의식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든지, 개인을 무시하는 집단을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바람직한 공동체라면 개인의 권리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가 공동체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떠한 공동체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똑같이 공동체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이는 상하 서열의 피라미드 구조를 떠올리고 지도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효율성과 성과를 추구하는 조직체를 떠올리고, 어떤 이는 인격적인 관계를 중시하면서 일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성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공동체의 중요한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지도자의 역할이 달라지고 교회 구성원의 역할도 현격하게 달라지게 된다.

공동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집단의 생각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생각을 꺼내놓고 서로 맞추고 조정해 가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은 공동체가 아니다. 생각을 획일화시키는 것도 공동체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면서 협의와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를 더욱 공동체답게 만들어줄 것이다.

진리의 반대말은

극장에 들어서면 회색 카펫과 스탠드에 꽂힌 마이크가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 곧 강연이라도 할 것만 같은 공간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수십 명의 군중과 커다란 의자에 착석하는 인물들에 의해 순식간에 채워집니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성가대가 ‘Standing in the Need of Prayer 기도’가 필요한 건 바로 저예요’를 부르며 관객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성가를 부르기 시작하면 마치 어떤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마치 예배 전 교회 풍경을 연상케 하는 이 장면은 연극 <크리스천스>의 첫 장면입니다.

사실 연극과 종교, 극장과 성전은 매우 닮아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무대에 성호를 긋고 성호경을 읊으면 교회가 됩니다.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외우면 법당이 됩니다) 무엇보다 서양에서는 연극이 고대 그리스 시대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시작되었다는 제의(祭儀)설이 정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에는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등 세 명의 비극작가가 유명했는데, 그중에서도 소포클레스의 인기는 단연 최고였습니다.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가문의 비극을 다룬 ‘테베 3부작’을 완성한 장본인입니다. 운명을 피하려다 운명을 맞이한 오이디푸스가 왕좌에서 내려와 테베를 떠나는 <오이디푸스 왕>, 그리고 두 딸 안티고네, 이스메네와 함께 방랑의 길을 걷는 오이디푸스의 말년을 그린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그리고 오이디푸스 사망 후 테베로 돌아온 안티고네가 숙부의 왕명을 어기고 오라비의 시신을 매장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는 <안티고네>가 ‘테베 3부작’입니다. 이 중 <안티고네>는 <크리스천스>와 많이 닮았습니다.

연극 <크리스천스>의 이야기 안에서 벌어지는 설전과 갈등의 핵심은 바로 ‘지옥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 풀은 한 해외선교사의 경험담을 듣고 지옥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게 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지옥은 없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옥에 갈 것이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지옥에 있으니까. 네가 할 일은 그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지옥에서 그들을 구하는 것이다.”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1년 미국 미시간주의 한 대형 교회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계의 록스타’라고 불렸던 마스 힐 바이블^{Mars Hill Bible}의 담임목사 롬 벨^{Rob Bell}은 자신의 책 『사랑이 이긴다: 천국, 지옥, 그리고 모든 사람의 운명』^{Love Wins: Heaven, Hell, and the Fate of Every Person Who Ever Lived}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 천국에 가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게 가능할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에 영원한 고통을 선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옥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당장 교계에서는 롬 벨에 대해 ‘성경적 진실에 대한 배교행위’를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롬 벨은 책이 출간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자신이 일군 교회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기존의 기독교 교리와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롬 벨은 이단으로 몰려 목사로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개척교회로 시작해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던 마스 힐 바이블에서, 연극 <크리스천스>는 작가 루카스 네이스가 롬 벨 목사의 사건에서 모티프를 가져와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신학적 논쟁이 이 연극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보다 연극은 믿음에 관해 질문하는 듯합니다. 사실 ‘지옥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영역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은 기존의 교리에 대한 믿음에 의해 양분될 것입니다. 여기서 루카스 네이스는 어느 한 편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양쪽 모두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제시합니다. 작가는 폴과 조슈아, 폴의 부인 엘리자베스, 장로 제이, 그리고 평신도 제니까지 모두에게 설득력을 더해줍니다.

일례로 조슈아의 대사를 옮겨봅니다. “저한테 쉬운 일 아닙니다,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는’ 게 저를 기분 좋게 하지 않아요.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기분이 이상해, 거의 하룻밤 사이에, 당신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게 되었어. (...) 그리고 난 생각해, 당신이 또 뭐를 믿을까, 나는 ‘믿지’ 않고, 아직 알지도 못하고, 알게 되면 무서워질 당신의 다른 ‘믿음’이 또 뭐가 있을까.”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서서히 분열되어 갑니다.

폴의 마지막 독백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지금 내가 믿는 것들을 믿고 있는 걸까요. 나는 내가 믿는 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실임을 제가 어떻게 아는 겁니까? 느낌으로요. 그럼 그 느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주셨음을 압니다. (...) 하지만 제가 달랠다면요?” 결국, 지옥이나 하나님의 존재 등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믿음에 의거한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물의 작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슈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인물로, 성경에서는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은 아마도 사도 바울에서 가져온 듯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신약성서의 절반을 차지하는 바울서신을 작성한 초기 기독교의 사도입니다. 아마도 작가는 바울서신에 지옥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해 주인공에게 폴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거짓? 그것은 진실의 반대말은 될 수 있어도 진리의 반대말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오래전 졸업한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맹신이다.’ 데카르트적으로 풀어 설명하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진리는 무조건적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진리란 끊임없이 회의하고 회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다른 관점을 인정하는 일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극 <크리스천스>를 통해 다른 관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역·드라마터그의 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과거에 공연했던 작품을 다시 무대에 올리기 위해 들여다보는 일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6년 전 <크리스천스> 초연 당시 연출과 저는 청년의 끝자락이라고 우겨볼 수도 있는 3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는 꿈쩍없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사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당연히 변해왔을 것입니다. 삶의 다른 단계에서 같은 작품을 다시 보니 같은 글 속에 다른 행간이 읽히기도 하고, 문법적으로는 오역이 아니었던 문장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문장으로 재번역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습 초반에 연출의 방향성에 맞춰 작품 해석의 관점을 함께 조율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대사를 윤색하는 작업에 다 같이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초연 당시에는 ‘각자의 믿음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론장’에 초점을 두고 대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장 사적인 대화까지도 공적 담화에 적합한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도록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인물들 간의 논쟁이 개인적인 다툼으로 보이게 될까 저어하여 언어를 바닥에서 살짝 띄우고 싶었달까요. 이번에는 거꾸로 언어를 가능한 바닥에 잘 붙이고 싶었습니다. 각 인물들이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폴 목사와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이 그들의 말에 묻어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각 장면의 맥락에 따라 담화의 층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싶었고, 인물들 간의 사적 관계가 더 잘 나타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크리스천스>에 나타나 있는 갈등의 구조와 줄거리는 무척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임하는 인물들, 최소한 이번 공연에서 연출이 빚어내고자 한 인물들은 굉장히 판타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직하고 선하며’ 행동의 모든 동기를 믿음과 사랑에서 찾는 사람들. 그렇기에 적당히 타협할 수 없어 갈등하면서도 끝까지 서로에 대한 연민을 놓지 않는 사람들. 하나의 공동체를 함께 키워내고 그 안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 현실 세계에 없지는 않지만 흔치도 않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는 더욱 현실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천스>는 주요 소재인 종교에 착안해서든, 올해 두산인문극장 주제인 ‘권리’에 착안해서든 ‘이 작품은 무엇에 관한 극’이라고 정의 내리기 어렵지 않은 작품입니다. 이미 <크리스천스>가 어떤 주제를 다루는 작품이라고 정의하는 많은 문장들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정의들이 맞다고 느껴지는

한편, 그 모든 정의들이 작품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스>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며, 질문에 대해 질문으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관객분들이 쉽게 하나의 답으로 귀결되지 않는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극장 문을 나서게 되기를, 그래서 무대 위에 국한되어있던 공론장이 관객과 함께 극장 밖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번역·드라마터그 정지수

번역 <생활의 비용(Cost of Living)><얇은 경계(The Thin Place)>
<트라이브스(Tribes)><머나먼 이웃(Distant Neighbors)>
외 다수

드라마터그 <머나먼 이웃><요정의 왕><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코끼리> 외 다수

연출의 글

이 연극은 작은 개척교회에서 시작해 대형 교회로의 성장을 이루어 낸 한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오랜 시간에 걸쳐 교회 신축을 위한 채무를 드디어 다 갚은 어느 날, 담임 목사 풀은 긴급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설교를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앞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혼자서는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기도문은 작품 전반에 걸친 드라마 구조와 주제를 함축적이고 명쾌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역설적으로 그렇지 못한 양상으로 흘러갈 이야기기를 암시합니다. 주제적으로는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삶의 관점과 감각이 너무도 다른 입장들이 결국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고통스럽더라도 서로의 의심과 회의를 입으로 전하는 것 말고는 진정한 의미의 연결과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극은 특정 종교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할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다양한 공동체(가족-조직-지역사회) 안에서 경험하는 모순, 분열, 소통, 화합의 고통스러운 국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면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격렬한 생각과 감정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원작자 루카스 네이스가 자신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제작진은 이 작품이 ‘특정 신앙을 가지고 있는 관객분들과 가지고 있지 않은 관객분들 모두’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는 작품이 되기를 바라며 정성껏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다양한 매체에서 종종 성의 없게 묘사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함부로 유형화, 일반화, 대상화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국면의 ‘종교인 서사’를 만나는 반가운 기분이 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종교를 가지지 않은 관객분들에게도 깊은 공감과 위로, 지적 자극과 영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매일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나의 신념과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증명할 수 없는 딜레마를 마주하고 품어내는 분들, 입 밖에 꺼내어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격렬한 생각과 감정들을 가진 분들, 결국 고통을 감내하는 소통을 하며 가족,

조직, 지역 사회의 일상과 유대를 지켜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작품이 단단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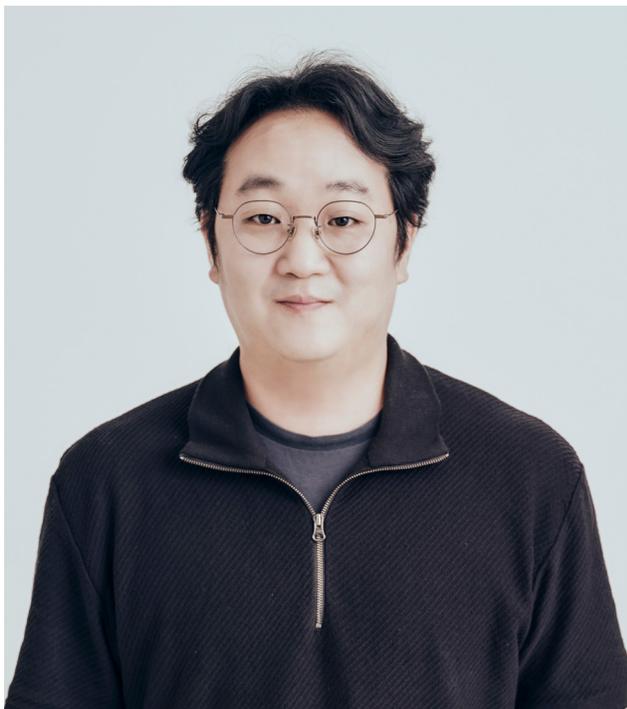
‘권리’는 결국 당장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이 작품은 그 ‘권리 이면의 딜레마’를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영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본 작품이 2024년 두산인문극장 프로그램의 외연을 건강하게 확장하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출 민새롬

극단 청년단 대표

연출 <꽃병 물갈이><암덕 : 류의 기원><나무 위의 군대><온 더 비트>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크리스천스><아들 Le Fils>
<머나먼 이웃><요정의 왕><미사여구없이><전방인간> 외 다수

수상 201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2005 제27회 전국대학연극제 연출상



박지일 폴

연극

<햄릿><엔젤스 인 아메리카><크리스천스><오피스><사회의 기둥들>
<당통의 죽음><니부모 얼굴이 보고싶다><33개의 변주곡><대학살의 신>
<도살장의 시간><오레스테스><다우트><이아고와 오셀로><바다와 양산>
<서안화차><보이체크><까리굴라1237호><내가 죽은 이유><세자매>
<밤으로의 긴여로><물고기 남자><갈매기><윤동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슬픔의 노래> <죄와 벌> <죽음의 푸가> 외 다수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심야식당><리틀샵 오브 호러><맘마미아>

수상

2024 제34회 이해랑 연극상
2004 제41회 동아연극상 연기상(극단 물리- 서안화차)
2003 공연예술제 관객모니터단 선정 최우수 연기상 (극단 물리-서안화차)
2003 문예진흥원 꽃봉지회 올해의 배우상
2002 제7회 히서연극상 올해의 연극인상
2002 제2회 서울공연예술제 연기상 (극단 창파-사물의 왕국)
1999 한국연극협회 올해의 우수연극 BEST5 연기상 (극단 배우세상-물고기남자)
1996 제20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극단 열린무대-슬픔의 노래)
1993 제29회 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상 (극단 산울림-죄와 벌)



김종철
제이

연극

<아버지의 다락방><엄마(시인 연산)><베니스의 상인><리어왕>
<마리마리><땡큐하나님><0.917><카덴자><누구세요?><불가불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외 다수



안민영
엘리자베스

연극

<도축의 내력><웰킨><행인두부의 이야기><그 남자-이육사>
<사이코패스-푸른수염 이야기><텃밭킬러><의붓 기억-억압된 것의 귀환>
<아무튼 백석><두뇌수술><물의 정거장><바람의 정거장><모래의 정거장>
<버스가 온다><적빈><겨울> 외 다수

수상

2020년 36회 LA 아시안퍼시픽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2018년 제6회 노이다 영화제 여우주연상
2017년 17회 이인극 페스티벌 여자연기상
2017년 유라시아 영화제 여우주연상



박인훈 제니

연극

<얇은 경계><크리스천스><클로저><굿바이><버라이어티 모놀로그>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고양이 늑>

뮤지컬

<컴퍼니>

영화

<경미의 세계><이씨 가문의 형제들><보이 인더 풀><북촌방향>
<잘 알지도 못하면서><로맨스 조><어쩌다, 결혼>



김상보
조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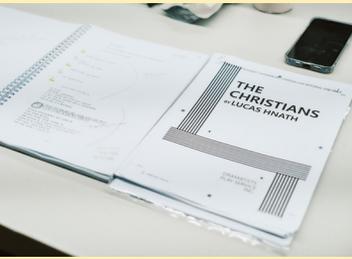
연극

<추남미녀><당선자 없음><한 여름밤의 꿈><페르귄트><반짇고리 자작>
<알마게스트><정글북><멘탈 트레블러><이게 마지막이야><말뚝의 눈물>
<두 번째 시간><일곱집매><단지 세상의 끝><수정의 밤><무순6년>
<보물섬><십이야><숲에 이르기 직전의 밤> 외 다수



**임하영 주연경 김태임 이진서 김주희 김민중 김도희 정희원 김시연
이동근 유기옥 정연구 김민경 윤은경 나수정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성가대**











연습일지

사전 워크숍 - 맥락 탐색 (2024년 2월 ~ 2024년 3월)

본격적인 드라마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주 1-2회가량의 사전-제작(pre-production)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연극 <크리스천스>의 미국 초연 제작 상황, 원작자 루카스 네이스와 초연 연출가의 창작진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작품이 탄생한 배경과 맥락을 재점검했다. 더불어 2024년인 지금, 본 한국 공연이 전하고자 하는 맥락과 창작 방향성 또한 논의하였다. 원작자의 인터뷰 내용에 언급되어 있듯, 해당 작품이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에게’ 영감이 되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과 개인과 사회(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역동적인 질문이 생성되는 연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연출진의 방향 제시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

본연습#1 - 공연 대본 만들기 (2024년 4월 ~ 2024년 5월)

#장면/대사 윤색

2018년 초연 희곡 원문(영문), 희곡의 최근 개정판(영문, 초연 번역본(한글))을 비교 분석하며 문장 재번역과 출연진/연출부의 공동 대본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2018년 초연의 상황들과 달라진 인물 해석, 장면 목표들을 반영하여 번역·드라마터그가 1차 재번역하였다. 그리고 그 문장들을 출연진과 연출부가 함께 읽어보며 재공연 대본의

전반적인 언어 표현의 체계와 의도들을 정리해 나갔다.

#발화(speech)의 내용/형식 점검

1:1의 긴 대화와 설전으로 구성된 작품에 필요한 발화(speech)의 종류와 형태에 대한 이해와 구분이 필요했다. 대본 전반에 걸쳐 인물들이 주고받는 관념적인 대화 내용을 관객이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공감하며 대화 논리의 흐름을 따라올 수 있도록 대화의 층위를 구분했다. 또한 인물의 특성과 장면 의도에 맞는 방식으로 대화의 세부 디테일과 특성들을 극대화하는 시도들을 진행했다.

* 예시: 일상 수다(chat)와 정보/생각을 교환하는 토론(discussion)의 발화 형식 구분

본연습#2 - 공간 탐색 (2024년 5월 중순 ~ 2024년 6월 중순)

펜싱 경기장 같은 좁고 긴 삼면 무대의 공간감을 이용해 장면의 역동성(activity)을 찾고 표현하는 연습이 진행되었다.

공적(official)인 발화와 사적(private)인 발화가 혼용되거나 중첩되어 있는 작품의 특성을 공간에서 구현해내기 위하여 여러 감각을 찾는 연습을 진행했다. 공간감에 맞는 음성을 다양하게 찾는 시도도 있었다. 관객이 극장 스피커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대화’와 ‘내밀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적인 대화’ 모두를 경험할 때 매번 다르게 발생하는 감각에 대해

연구했다. 그래서 마이크를 드는 자세, 마이크와 연기자의 거리, 마이크를 들고 있는 캐릭터의 세부 움직임 등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관객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식으로 열려 있는 빈 무대처럼 보이지만 장면마다, 그리고 어떤 순간마다, 마이크 볼륨과 말의 거리감을 배우 스스로 연출해 내며 ‘새로운 장소에 왔다’는 감각과 ‘아주 내밀하거나 넓은 공간에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장면마다 인물의 심리적 상황, 표현의 밀도가 극단적으로 압축되어서 연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화술시도, 동선시도, 마이크 운용 시도들이 병행되는 공간탐색(free-blocking)이 계속 진행되었다.

본연습#3 - 장면 만들기/다듬기 (2024년 5월 중순 ~ 2024년 6월 중순)

장면의 줄거리나 분위기를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캐릭터가 장면마다 던지는 구체적인 질문과 논리가 역동성을 띌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연습이 이어졌다. 캐릭터의 사실감을 획득하기 위해 사소한 일상 어휘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였고 액션의 디테일과 세부적인 발화 채도를 찾아 나갔다. 사건의 정황이나 사소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화나 언어에 ‘인식적인 크기’들을 담기 위한 연출의 노트와 실천적인 연기 시도가 이어졌다.

결국 장면에서 구현되는 모든 인물들의 대화가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인 국면에서 상대방에게 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대한 공통의 인식들을 계속 찾고 대화 안의 맥락들을 쫓아 나가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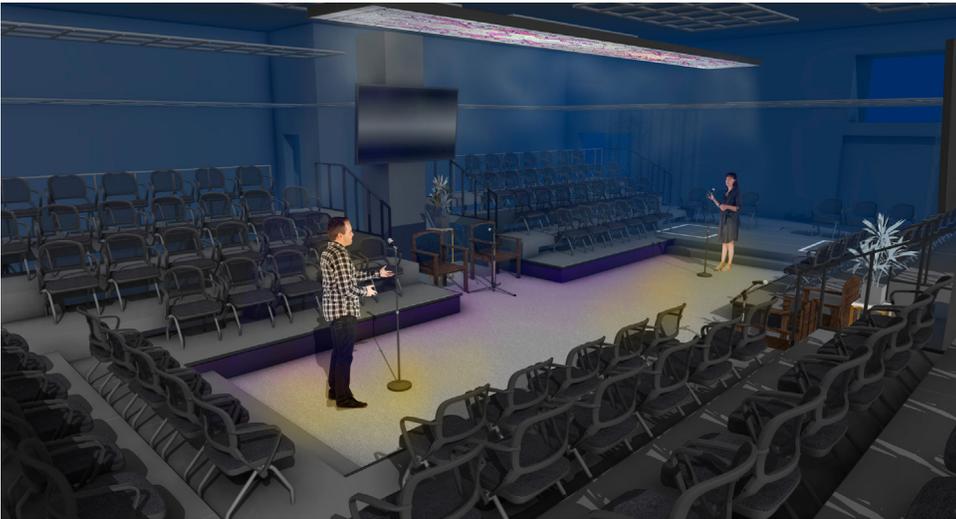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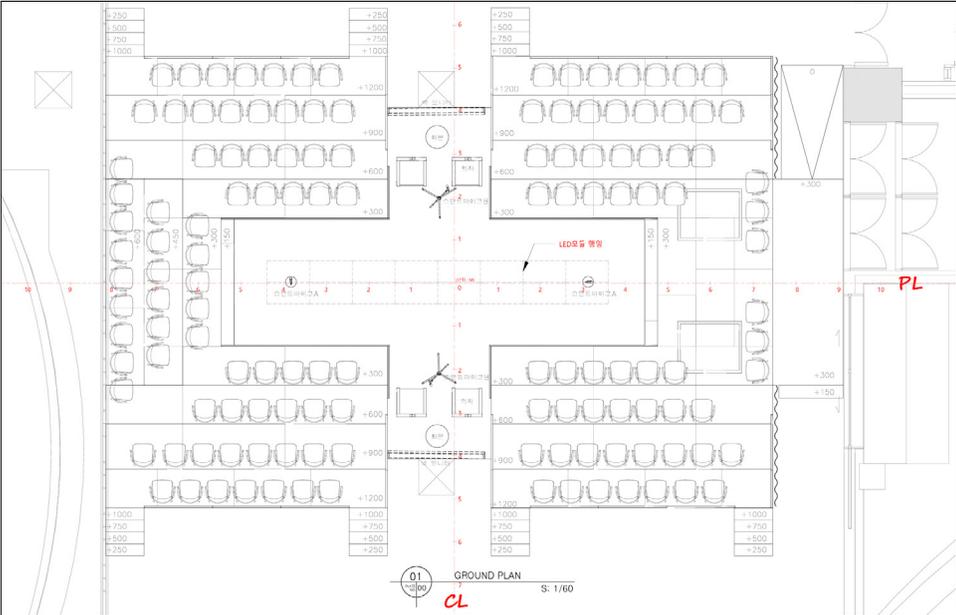
장면의 동선 작업과 병행하여 캐릭터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영적 지도자인 폴 목사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존재감, 공동체에 대한 이들의 헌신과 기여를 보다 선명하고 볼륨감 있게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제이 장로, 엘리자베스 사모, 조슈아 부목사, 제니 평신도가 교회 공동체와 폴 목사라는 개인에게 가지는 구체적인 관계의 동력과 욕망들을 장면에 역동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질문과 시도들이 이어졌다.

무대 디자인 노트

“무대는 연극의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하나의 재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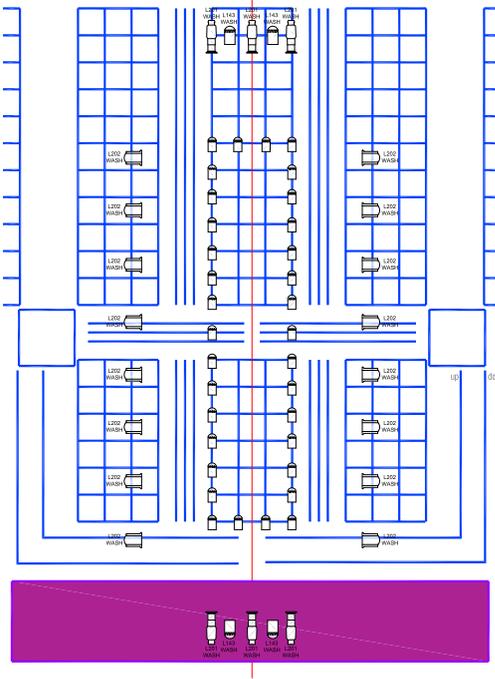
연극에서 무대미술은 말없이 공연 환경을 제시하는 극적 재료입니다. <크리스천스>의 대본에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아주 단순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크리스천스>에서 무대미술은 기능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산아트센터 Space111’의 공간 특성과 작품의 주제적 성격을 결합하여 초연의 표현 방식에서 탈피한 또 다른 극적 환경 구조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공연의 핵심 과제는 ‘플 목사와 다른 인물 간의 격렬한 대화에서 보이는 대립의 이미지를 관객의 눈앞에서 재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연기 공간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인물에 최대한 몰입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본에서 제시한 장소에 대한 설명적인 미술 요소들은 이미 인물들의 대사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생략하여 관객들이 인물들의 대사와 극 중 태도를 통해 모든 것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명 디자인 노트





민음의 조각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한 조각이 개별적으로 빛나는 순간,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스>는 신뢰가 모인 공동체의 이면에 깔린 개별적 민음으로부터 파생되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초연은 사실적인 교회 공간에서의 드라마로 극을 풀어냈지만 이번엔 한발 더 들어가 ‘분열의 순간’, ‘이 공동체가 믿고 행하는 권리가 개별적으로 분리될 때 무너지긴 하지만, 비참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두 발로 버텨 서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순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조명은 일반 드라마의 서사를 따르기보다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신뢰를 표현하고자 전체를 잘 보여주기보다는 대비를 강하게 가져가 극에서 포착해야 하는 순간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영상 디자인 노트

THE CHRISTIANS

크리스천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크리스천스>의 영상 디자인은 텍스트의 강조, 무드 조성, 조명/음향과의 조화를 통해 신앙심, 믿음, 갈등, 균열, 딜레마 등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지점’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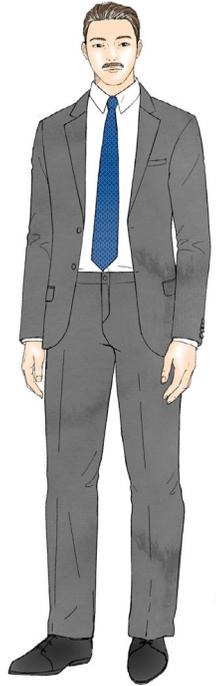
의상 스케치



폴



조슈아



제이



엘리자베스



제니

음악 노트 1. 선곡, 작곡 노트

1. 성가곡 선곡 의도 (선곡 김정용, 편곡 손승희)

The Harlem Spiritual Ensemble

처음 받아본 <크리스천스> 대본에는 ‘성가에 대한 주석’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성가#1 -가스펠, 안정적이고 위로가 되는 곡 예시>...

성가#2 -보다 빠르고 열렬하며 부흥의 분위기를 내는 곡 예시>..

성가#3 -좀 마음을 흔들고 찬찬한 곡 예시>...

성가#4 -밝고,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곡 예시>...

대본상 제시된 곡들은 사용하기에 다소 생소하고 미묘한 인상이 들었고, 연출 의도가 청각적인 측면에서 미국교회의 사실감을 구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일상에서 영화 같은 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흑인 가스펠의 생동감과 에너지를 음악으로 구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련해 레퍼런스로 찾아본 **The Harlem Spiritual Ensemble** 음반에서 작업의 주요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1. Standin' In De Need of Prayer

입장한 관객에게 미국 교회라는 극 공간을 열어주어 빠르게 극의 사실감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사와 제목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장면과 인물에 대한 암시의 의미도 담았습니다.

#2. Amen!

대본상 제시곡 주석에도 나와 있듯이 열정적인 부흥의 느낌을 담았습니다.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과 폴 목사와 조슈아 부목사 간의 치열한 논쟁의 서막을 알리는 곡이기도 합니다.

#3. The Isle Of Innisfree

관객은 미국적인 색채의 음악에서 아일랜드 국적의 음악으로 넘어가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해당 음악 장르를 ‘셀틱’ 혹은 ‘켈틱 뮤직’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 ‘Danny Boy’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곡입니다. 폴 목사와의 설전 이후 퇴장 직전의 조슈아 장면에서만 이 장르를 선택한

이유는 따스함과 쓸쓸함이 공존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셀틱만큼 적절한 장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슈아의 정서적, 물리적 상태가 작고 초라한 섬 같아 보여 쓸쓸함이 필요했고 또한 위로가 되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합창보단 독창을 선택한 이유기도 합니다.

#4. Ah Wanna Be Ready

행진(March)의 느낌이 다분한 이 곡은 현실적인 갈등이 벌어지고 난 후의 장면을 칼로 자르듯이 뚫고 나옵니다.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상황들이 점점 더 강하게 진행될 거라는 암시와 함께.

2. 엔딩 음악 (혹은 커튼콜 음악) 작곡 의도

실 새 없이 몰아치던 믿음과 의문, 도전과 갈등의 향연이 암전과 함께 마지막 남은 공기마저 빠져나간 듯한 ‘완벽한 진공과 같은 침묵’을 청각적으로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마주한 폴 목사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암전에서 나와야 하고 악기도 최소화하기 위해 목소리(보컬 사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의 예상 가능한 가스펠과 조슈아 장면의 서정적인 셀틱 장르는 피하고자 했습니다. 약간의 따스함과 그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건조함이 감싸야 하고, 예상치 못한 음악적 전개도 필요했습니다.

암전을 뚫고 나온다기보다는 원래 암전과 한 몸이었을 것 같은 그 무언가...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재즈풍 보컬 솔로였습니다. 가사의 개연성도 드라마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하다기보다는 과감한 도전이었기에 음악감독 입장에서 스릴 넘치는 시도였습니다. 보컬로 시작되는 이 곡은 중간에 드럼 비트로 환기하고, 다시 보컬 솔로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음악 노트 2. 성가곡 편곡, 코칭 노트

Standin' in the Need of Prayer

크리스천스 성가곡 African-American spiritual

Sop. Alto
Ten. Bass

It's me, It's me, It's me, O Lord...
stand-in in the need of prayer - - It's me, It's me, It's
me, O Lord... stand-in in the need of prayer Not my
broth-er, not my sis-ter, but it's me, O Lord,
stand-in in the need of prayer. Not my broth-er, not my sis-ter but it's
me, O Lord... stand-in in the need of prayer - - It's

Copyright © 2024 by seunghee. S

Amen

크리스천스 성가곡 African-American Spiritual
Arr. seunghee. S

Solo
Sop. Alto
Ten. Bass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This lead a life of - mine i'm go-na let it - shine.
this lead a life of - mine... i'm go-na let it - shine...
two... i'm go-na let it - shine...

Copyright © 2024 by seunghee.S

연극 <크리스천스>와 성가대

<크리스천스>는 극 중 배역이 있는 배우 외에 다수의 성가대가 등장하는 극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함께하게 된 성가대에는 다수의 일반인, 몇 명의 배우,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합니다.

성가대 코칭 과정

우리말이 아닌 영어 가사, 익숙하지 않은 리듬, 흑인들의 엄청난 가창력과 그루브를 따라가긴 힘들지만 우리만의 흥과 에너지로 자신감을 올리는 것이 코칭의 포인트였습니다.

연령대, 개성, 직업 등 다양한 사람들이 앙상블을 만들어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맡은 자리에 “재미있게 하자!” 라는

생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 재미있게, 재미있다, 재미있었다 = ‘또 하고 싶다’ 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초연에는 라이브 연주와 지휘로 함께 했지만 이번 공연은 레코딩 방식을 사용하였기에 현장에서 지휘자 없이 오롯이 성가대의 눈빛과 호흡만으로 공연되는 것 또한 관전포인트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성가대 음악 4곡의 편곡 의도 및 가창 방향성

#1. Standin' in the need of prayer

관객들이 극장에 들어와 열린 마음으로 드라마를 즐기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리듬감에 중점을 둔 곡입니다.

The Isle of Innisfree

크리스마스 성가곡 Words & Music by
Dick Farrelly

I've met some folk who say that I'm a dream-er—and I've no
o'er green hills, thro' dream-y valleys—and find a
doubt there's truth in what they say. But sure a bod-y's bound to be a
peace no oth-er land could know. I hear the birds make mu-sic fit for
dream-er—when all the things he loves are far a way. And pre-cious
on a gill—and watch the riv-er's laugh-ing as they flow. And then in
things one dreams on to an ex-ile—they take him O'er the land across the
to a hum-ble shack! I wan-der—my dear old home, and ten-der-ly be-

© 2024 seunghye S. All rights reserved

#2. Amen

서두의 아카펠라가 포인트인 곡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만큼 아름다운 악기가 없듯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과 기쁨을 성가대 출연진 한 명, 한 명 목소리에 담아 표현하고자 편곡, 연습하였습니다.

#3. Isle of Innisfree

유일한 솔로곡입니다. 극 중 대사와 감정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성가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입장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외로이 떠날 수밖에 없는 조슈아의 뒷모습과도 어울릴 수 있도록 편곡 시 허밍 구간을 만들어 장면에 대한 성도들의 입장과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Ah Wanna Be Ready

크리스마스 성가곡 African-American Spiritual
Ave songbook 5

I Wan-na be re-a-dy i wan-na be re-a-dy
i wan-na be re-a-dy to walk in— Je-ru-sal-em— just li-ke John
John said the ci-ty was just four-squa-re— an...
walk in— Je-ru-sal-em— just like John

Copyright © 2024 by seunghye S

#4. Ah wanna be ready

행진곡 느낌의 음악으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4성부 편성으로 편곡했습니다. 솔로 라인을 살리면서 포인트가 되는 ‘Walk in Jerusalem just like John’을 함께 부르며 교회 공동체를 향한 구성원 각자의 믿음과 의지를 힘 있게 담아보는 방식으로 지도, 연습하였습니다.

두산인문극장 2024: 권리

크리스천스 The Christians

2024.6.25-7.13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작 루카스 네이스 Lucas Hnath

번역·드라마터그 정지수

연출 민새롬

출연 박지일 김종철 안민영 박인춘 김상보

성가대 김도희 김민경 김민중 김시연 김주희 김태임
나수정 유기욱 윤은경 이동근 이진서 임하영 정연구
정희원 주연경

조연출 박세연 윤현경

프로덕션 무대감독 이묵수

무대디자인 오태훈

어시스턴트 무대디자인 김은비

무대모형제작 조예지

무대제작 에스태이지(s_TAGe, 대표: 이윤중)

제작팀장 정우상

제작팀 김세진 권오준 이종민 차승호 정우근 임대환
정재현 박호준 이승윤

작화팀 작화공간

작화팀장 이남련

작화팀 박지원 이재형 김유진 김용선 이정민

조명디자인 노명준

조명팀장 김병희

조명프로그래머 정채림

조명·영상오퍼레이터 김보영

조명팀 김대현 나홍선 박병철 오세현 오정훈

음악감독 김정용

성가대 음악감독 손승희

음향디자인 조준식 강지수

음향오퍼레이터 윤현경

필드레코딩 보컬리스트 강인대 김민정 진아

필드레코딩 엔지니어 정재윤

영상디자인 이수경 김태우

영상제작 스크몬

영상팀 이슬 배윤경

LED디스플레이 쥬크리디엘미디어

영상촬영 엘리스 스튜디오 프로젝트

의상디자인 도연

의상제작 뽀엣드로(대표 도연)

팀장 최아람

팀원 이가희 장유정 최규빈

분장디자인 장경숙

분장팀 한도희

자막해설디자인 이청

자막해설오퍼레이터 이수림

접근성매니저 정혜민

그래픽디자인 포인터스

SNS콘텐츠제작 필루미에르

사진기록(프로필·설정·연습·공연) 김신중

영상기록(연습) 필루미에르

영상기록(공연) 헤즈스튜디오

인쇄 으뜸프로세스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

센터장 강석란

공연기획 김요안 남윤일 신가는 이정민

전시기획 장혜정 유진영 강하람 박성은

교육기획 박찬종 정다운 이보라 박세연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이지혜 김예리

티켓 이희정 김지은

사무 고해민

기술총괄 신승욱

음향 류호성 전경미

조명 황동철 양은지

무대 강현후 박소연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하우스 안내원

이준 최다연 (헤드 어시스턴트 매니저)

감재원 권도이 권혁진 금다애 기나연 김채연 나현석

서유정 서장훈 송해원 신아영 윤아진 이건구 이담빈

이민주 이상규 이재빈 이재이 이정은 전윤희 정민경

지혜원 허수지 홍연재

* 본 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극장

기획「2018 아르코 파트너 BEST & FIRST」의 파트너 예술가로 연출가 민새롬이 선정되어 2018. 9. 27,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국내 초연되었습니다.

2024년 연극 <크리스천스>는 ‘두산인문극장 2024: 권리’ 프로그램을 통해 대본, 프로덕션 구성, 무대 미술 등을 새롭게 발전시킨 작품입니다.

* 본 공연은 특정 종교 및 종교 단체와 무관하며, 작품 속 사건과 인물은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입니다. 만일 실제와 같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License managed by Harmonia Holdings, Ltd. under special arrangement with Dramatists Play Service, Ltd.

2025 두산아트랩 공모 안내

두산아트랩은
공연·미술 분야의
잠재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여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연

접수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7월 10일(수)

지원내용

- 작품개발비(팀당 1,000만 원)
- 발표장소(Space111 또는 연습실), 부대장비 및 연습실
- 작품 개발 과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무대기술(무대감독,
사전 협의를 통해 무대/조명/음향 부문 인력 지원)
- 홍보마케팅

대상

- 40세 이하
- 한국 국적
- * 장르 제한 없음
- * 워크숍/독회/쇼케이스 형식으로 발표

공연기간

2025년 1-3월

선정인원

8명(팀) 내외
* 1명당 최대 2편까지 지원 가능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제출서류

- 필수: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선택: 공연소개 자료

전시

접수기간

2024년 7월 1일(월) - 7월 12일(금)

지원내용

- 두산아트랩 기획 전시 참가
- 창작지원비(1명/팀당 300만 원)

대상

- 35세 이하
- 한국 국적
- 개인전 1회 이상

전시기간

2025년 1-2월(선정작가 그룹전)

선정인원

5명(팀)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개별 인터뷰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지정양식)
- 포트폴리오

두산 아트센터 교육 프로그램

2024 여름

Studio DAC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Studio DAC

스몰 토크 6.11 - 6.13

독립창작자로 살아가기

- 6.11 박참새 (시인·북큐레이터)
- 6.12 김경태 (사진작가)
- 6.13 윤혜숙 (극작가·연출가)

아트 클래스 6.18 - 6.19

생각디자인: 공연 편

〈일상, 캐스팅, 제약 그리고 장르 창작하기〉
이성직 (연출가)

리딩 클럽 6.26 - 7.10

『나는, 동물』을 통해 매주 수요일
다르게 감각하는 권리
홍은전 (작가, 인권·동물권 기록활동가)

웰컴 스튜디오 6.27 - 6.28

오후 2시, 3시, 4시

두산아트스쿨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11기

- 6.22 - 8.17 연기·제작 워크숍
성수연 (배우)
- 7.12 - 8.16 연기·연출 워크숍
정진새 (극작가·연출가)
- 7.15 - 8.19 희곡 워크숍
배해률 (극작가)

두산아트스쿨:

공연 8.20 - 8.23

희곡, 읽기와 보기

- 8.20 이오진 (극작가·연출가)
- 8.21 김수정 (연출가)
- 8.22 정진새 (극작가·연출가)
- 8.23 배해률 (극작가)

두산아트센터 투어

7.1, 7.8 구성: 강현주 (극작가·연출가)

예약·문의 두산아트센터

- @ @studio.dac_doosan
- ☎ 02-708-5001
- 🏠 doosanartcenter.com
- ✉ webmaster@doosanartcenter.com

DAC Artist

신진호

연극

애도의 방식

2024.10.1-10.19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 · 제작 두산아트센터

원작 안보운 「완전한 사과」, 「애도의 방식」,

「밤은 내가 가질게」(문학동네, 2023), 「딱 한 번」

각색 김윤식

연출 신진호

출연 김의태 김정아 신소영 이은정 최태용 최호영

DAC Artist

배해률

연극

시차

2024.10.29-11.16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 · 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배해률

연출 윤혜숙

드라마터그 김지혜

출연 우미화 정대진 허지원 이주협 신지원

두산아트센터 2024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공연

연강홀 Yonkang Hall

뮤지컬 **스토리오브마이라이프** 2023.11.30-2024.2.18

연극 **엠.버터플라이** 3.16-5.12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 5.22-8.25

뮤지컬 **리지** 9.13-12.1

뮤지컬 **고스트 베이커리** 2024.12.12-2025.2.23

Space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4

무용 **메타발레: 비(非)-코렐리아 선언** 1.11-1.13

연극 **할머니의 언어사전** 1.18-1.20

연극·신체극 **산호초를 그린 자국** 1.25-1.27

연극 **명태 말고 영태** 2.1-2.3

다원 **메이크 홈, 스위트 홈** 3.7-3.9

연극 **사회적 청소년기를 바탕으로 한 창작과정이**

인형작업자의 창작과정에 미치는 영향: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타자'를 중심으로 3.14-3.16

연극 **문병재 유머코드에 관한 사적인 보고서** 3.21-3.23

연극 **미아 미아 미아** 3.28-3.30

두산인문극장 2024: 권리

연극 **더 라스트 리턴** 4.30-5.18

연극 **인정투쟁: 예술가 편** 5.28-6.15

연극 **크리스천스** 6.25-7.13

공동기획

연극 **케이멘즈 랩소디** 4.6-4.21

연극 **당연한 바깥** 7.20-8.4

DAC Artist

연극 **신진호 신작** 10.1-10.19

연극 **배해률 신작** 10.29-11.16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연극 **이홍도 신작** 11.26-12.14

전시

두산갤러리 DOOSAN Gallery

두산아트랩 전시 2024 1.17-2.24

권현빈 개인전 **We Go** 3.20-4.20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우리는 개처럼 밤의 깊은 어둠을

파헤칠 수 없다 5.15-6.22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7.10-8.10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유신애 개인전** 9.4-10.12

한나 허 개인전 11.13-12.21

교육

두산인문극장: **강연** 4.8-6.24

두산아트스쿨: **미술** 4.18-5.9, 10.10-10.31

두산아트스쿨: **공연** 8.20-8.23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6.22-8.19

Studio DAC: **스몰 토크** 6.11-6.13

Studio DAC: **아트 클래스** 6.18-6.19

Studio DAC: **리딩 클럽** 6.26-7.10

Studio DAC: **웰컴 스튜디오** 6.27-6.28

두산아트센터 투어 7.1, 7.8

공모

공연

DAC Artist 1.8-1.25

공동기획 5.6-6.5

두산아트랩 공연 6.10-7.10

미술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1.30-2.9

두산갤러리 해외 레지던시 5.6-5.13

두산아트랩 전시 7.1-7.12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갤러리 02.708.5050 doosangallery.com

공연, 전시, 교육 및 공모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